

JTS

VOL. 124
2017.0304

JTS Philippine

선생님들이 가장 기다리던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 시간. 정답!!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여댄어 맞추기 게임에 집중한다.





7



13



22

Contents

해외소식

02 나마스떼, 등게스와리(인도)

26일 전쟁 - 김윤미
인도 활동 소식

11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필리핀 활동 소식

국내소식

22 함께 하는 사람들

사람들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기성
국내 활동 소식

26 나눔회원소식

후원인의 소리
2016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기부소식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7. 4. 3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윤민아, 이주용, 김기연, 권지연, 김영숙, 신지원, 김옥희, 유주영, 김명순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해외소식
인도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2
2017 APR-MAY



26일 전쟁

기말고사, 결전의 그날을 위해

드디어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흥분과 긴장이 담긴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아이들은 싯다르타 하우스(수자타 아카데미의 기숙사)를 나선다.

글쓴이 인도JTS·김윤미 활동가

달콤 씹살했던 26일에 대한 소회

지난 2월 13일, 108명의 아이들과 16명의 선생님들이 싯다르타 하우스에 입실하는 것을 시작으로 26일간의 기숙학습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전쟁 같은 날들이 지나고 어느덧 3주째를 맞으니, 올 것 같지 않았던 끝도 겨우 일 주일을 남기고 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동시에 아이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퇴실하게 될 것이고, 반면 선생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즐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기다리는 아이들

열정적인 선생님, 성장하는 아이들

학기말 고사에서 학생들의 낙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교사들의 고생이 예견되어 있었다.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순수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아침과 저녁 짓는 일까지 모두 선생님들의 몫이다. 선생님들은 팀을 나눠 한 팀은 아이들의 자습을 봐주고, 다른 한 팀은 부엌에서 124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처음에는 일주일씩 팀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려 했지만 손이 모자라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마음 내 주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뿌리(인도의 튀긴 납작한 밀가루 빵)을 튀겨내고, 무거운 밥통을 옮겨 배식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뒷마무

시험을 보기 위해 기숙사를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비장하기까지 하다.

리에 다음날 아침 재료 준비까지..... 전문 요리사도 아닌 선생님들이 26일 동안 학생들을 위해 편안한 가족과 집을 떠나, 여기 싯다르타 하우스의 부엌데기가 되었다.

다른 한 팀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숙제를 점검해주고, 모자란 학습을 도와준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나가 업무 보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아이들의 학습을 돌보고 저녁먹이고, 종례회의를 마치면 10시를 넘기기 일쑤다.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을 보는 듯하다. 아이들의 얼굴엔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의 얼굴엔 두꺼운 피로가 쌓여간다.



교사들이 배식 후 도구들을 정리하는 모습



한 팀의 교사들이 식사 준비 하는 동안 다른 한 팀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공부만 하기 어려운 환경속의 아이들

인도의 학기는 4월이 시작이다. 새 학기에 앞서 치러지는 기말고사는 3월초에 치러지는데, 일정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낙제하여 유급으로 다시 그 학년을 다녀야 한다. 유급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대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유급 된 아이들도 새 학급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안 나오다가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부모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이들은 집에 가면 집안일을 돕느라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다. 어려서부터 동생을 돌보고, 조금 크면 부엌일을 하고, 더 크면 밭일과 논일을 하며 집안일을 돕는다. 숙제를 안 해 오는 것이야 다반사다.

이제 막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에 나오는 습관이 들기 시작한 이곳에서 부모님들께 '아이들 일 좀 적게 시키고 공부할 시간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제 때 배워야 합니다.’라는 JTS의 기본이념을 따르기 위한 선생님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그리하여 중학교 진급을 앞둔 4,5학년 초등생 중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32명과, 더 이상 수자타 아카데미가 아닌 외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등생 76명 전원이 기말고사에 앞서 약 한 달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단기 집중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수업 쉬는 시간에 자습을 하고 있다.

108명 아이들과의 공동체 생활, 멘봉의 연속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생활리듬, 먹거리에 적응하려는 탓인지 첫 한 주는 아픈 아이들이 속출하였다. 그 중에는 원인 모를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집과 떨어져 공동체 생활이 싫고, 억지로 공부하기 싫어서 온 가짜 통증임이 역력했다.

선생님들도 프로그램과 생활을 정비하고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업무(밥짓기)에 적응하느라 마찬가지로 전쟁 같은 첫 주를 보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고분근투하며 적응해가던 첫 주에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이야기에 대한 오해도 많아 아이들에게 못 먹을 것을 준다는 등, 넉넉히 주지 않고 배를 굶린다는 등, 아픈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무관한 항의도 더러 받았다.

아이들이 마냥 예쁜 게 아니었다

나 또한 고생이 심하여, 시끄러운 게 당연한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에 미치겠고, 몇 번이나 방을 돌아다니며 자라고~자라고~, 안자면 내일 벌주겠다고 먹히지 않는 협박을 해대고 다니는 것도 성질이 났다. 결국 선생님들마다 쫓아다니며 이 프로그램 내년엔 절대! NEVER! 다시는 만들지 말라며 설득을 넘어 압력을 행사하고 다녔다. 낙제하는 학생이 한명도 안 나와 내년엔 다시 하게 되면 어쩔 거냐며 한 선생님을 북아대니, 그런 일은 절! 대! 일어날 수 없으니 걱정을 하지 말란다.



감자껍질을 까는 교사들

고생과 보람의 한끝 차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넘어서니 혼란이 잦아들고 프로그램이 안정되듯, 나의 정신상태도 훨씬 안정되었는지, 주변을 살피는 여유가 생겼다. 며칠 전 시작된 기말시험에 학습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자습시간에 가보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 옆에 앉은 아이에게 묻는다.

“기숙학습 프로그램 어떠니?”

“보훗 아차(아주 좋아요)!”

내년에 이 전쟁을 다시하지 않으려면 나쁜 평가가 조금이라도 나와야하는데, 배운 게 ‘보훗 아차’란 단어밖에 없는지 묻는 아이들마다 전부 다 ‘보훗 아차’란다. 선생님들이 매일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부모님도 매일 못 보는데 뭐가 그리 좋냐니까 집에 가면 집안 일 돕느라 공부할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나는데, 여기서 맘껏 공부할 수 있고 게다가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단다. 그것뿐이라, 흙집 열개침대에서 형제들과 어깨 겹쳐 자다가, 수세식 변기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2층 침대가 있는 기숙사 방에서 자는 것도, 영양가 높은 재료 듬뿍 들어간 밥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도 좋을 수밖에.....

“시험 잘 봤니?”

“네.”

5학년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한다.

“100점?”

“..... 50점이에요.”

“.....”

그 점수 받으려고 너도 나도 한 달 동안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도 낙제 커트라인이 32점이라니 낙제는 면했구나. 고생했다.

그런데도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뿌듯함은 뭔지. 첫 애 낳을 때의 고통을 까맣게 잊고 다시 둘째 애를 갖는다는 여자들처럼, 내 머릿속에도 슬며시 다음해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할까 하는 고민이 자라고 있으니.....

이것 참 낭패로군.



공부하는 아이



아침준비를 도와주는 필자



법륜스님과 인도 봉사자들의 특별한 소풍

지난 1월말 인도 JTS의 전 자원봉사자와 법륜스님의 특별한 소풍이 있었습니다. 1월의 많은 행사들을 치르느라 수고한 공을 격려하는 스님의 선물인 것이죠. 두대의 작은 버스에 나눠 탄 36명의 봉사자들은 2000년전 손으로 파서 다듬은 수행자의 동굴이 있는 바라바산을 트레킹하고 내려와 산 밑에서 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비하르의 주도인 파트나로 이동하여 새로 조성된 불교

공원에 들렀다가 기대밖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대도시다운 교통체증으로 예상보다 한참 늦게서야 도착하게 됐지만, 스님이 주신 미타이(인도의 고급 단과자) 선물상자 푸짐하게 들고 돌아가는 봉사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

JTS의 지원을 받고 외부의 정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대신 매일 하루 3시간씩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16명의 9학년 학생들이 오랜만에 일감을 놓고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행사가 많아 9학년생들은 물품정리, 빨래, 청소 등등 행사 뒤편다꺼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오토릭샤(삼륜차)로 40분 거리의 보드가야에서 마하보디 대탑과 다른 나라의 사원들, 24m 불상 등을 구경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파란 수자타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예쁘고 빛이 나던지 지나가던 관광객들의 사진 모델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교사 교육

2월 첫 토요일, 멀리 히마찰 주에서 고등학교 교사이자 교사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사친 쿠마르님이 방문하여 무료로 교사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교사 약 20명은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함께 열린 토론과 주옥같은 강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 교사교육의 기회가 전무한 수자타의 교사들은 목마른 이가 샘을 발견한 듯 강의에 깊게 집중하였고 JTS의 취지와 교사들의 학습열정에 감동한 강사님은 연 1회 교사 교육 자원봉사를 하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산부지원

2월 8일 등게스와리 6개 마을, 45명을 대상으로 임신부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체중아 지원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임신부의 균형잡힌 영양상태가 저체중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부의 임신기간 중 4번 시기별로 필요한 예방접종과 영양제, 영양식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기존 6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결핵영양식 지원

2016년에 지바카 병원에서 지원을 받던 중 17명의 결핵 환자 중 16명이 완쾌되고(1명 사망), 2017년부터 새로운 4명의 결핵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핵 검사와 약은 정부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바카 병원에서는 정부병원진료를 동행하고 있고, 매주 영양식(쌀 3kg, 콩1kg, 비타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살된 아이가 결핵에 걸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나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카드 발급업무진행

2015년도부터 준비했던 센서스카드 발급업무를 드디어 2017년 2월에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5개 마을 중 10개 마을을 방문 진행했고 그중 1개 마을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갔다가 되돌아왔다. 처음엔 오후에 각 마을에 있는 유치원에서 진행을 해보고 몇 마을 진행 후 오전으로 시간대를 바꿔서 유치원 옆 시팅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모아 발급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센서스카드 관련해서 할 일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하다.





추가 극빈자 구호 가구 방문 조사

연간 4회 진행하는 극빈자 지원에 올해 추가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사전에 마을 리더들로부터 신청 받은 다음 실제로 마을을 방문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8개 마을 13명이 명단접수 되었고 센서스 카드 발급하는 일정 중에 가까운 마을에 다니면서 마을 리더와 동행해서 직접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 정말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확인결과 1가구만 선정되었고 올해는 작년 63명 중 2명이 사망해서 61명인 극빈자에 1가구 추가해서 62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JTS 활동 보고회

3월 9일 인도JTS 총괄 매니저 활동가가 국내 일정을 위해 입국한 동안 2시간여의 짬을 내어 보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생활 중 여러 가지에 피소드, 인도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마을 주민과의 관계 등의 이야기들을 특유의 유쾌한 톤으로 이어갔습니다. 그중 24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이어온 JTS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견고하다는 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에 맞달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이야기 등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11 / Join Together Society

풀뽑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교사 연수 사업 이야기

2011년부터 시작된 교사 연수 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3년 만에 6차 교사 연수가 열렸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라는 주제로 다물록 소재 12개 JTS 학교 교사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글쓴이 필리핀JTS·조혜림 활동가

3년 만이에요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학교 지원 사업으로 다물룩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다. 지난 교사 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니닝(활동가의 필리핀 현지 이름), 그런데 올해는 교사 연수 안 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안했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교사 연수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0월 말 다물룩 소재 12개교 교장과 대표 교사, 다물룩군 교육 담당관 그리고 다물룩군 군수를 은퇴하고 JTS 자원봉사자로 변신하신 총코 전 군수님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일정, 원하는 강의 주제, 기타 요구 사항(한국 음식의 비율은 25%정도)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3년 만에 열리는 연수에 들뜬 모습이었다. 기존에 12월에 진행한 일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1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리보나군에 위치한 JTS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물룩군에서 리보나군까지 편도 5시간의 먼 거리라 다물룩군 근처에서 진행할까 했지만,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리보나군까지 갈 기회가 없고, 다물룩과 달리 날씨가 시원한 센터의 공기를 느끼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물룩군 교육 담당관의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교육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 되어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상세 프로그램 기획 및 교사들과의 소통은 첫 번째 회의에서 기획자로 뽑힌 파굠평 학교의 대표교사인 ‘조지’가 담당했는데, 일처리가 꼼꼼하고 추진력이 좋아 처음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활동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와 세팅이었다. 한국인 활동가 4명, 단기 활동가 3명 총 7명이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와 주변 정리정돈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쁘드득 뿌드득

센터에서 3년 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어 방과 다이닝룸은 창고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센터 수용인원(36명)을 넘는 규모라 모든 공간을 비워야 해서 청소전에 정리정돈부터 되어야 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매주, 2주 전부터는 매일, 정리정돈과 수리 및 보수(화장실, 기타 시설), 청소와 세팅(침구류, 주방, 강의 관련)이 이루어졌다. 공간은 사람이 살아야 빛을 발하는 법! 활동가들의 몸은 고됐지만 센터의 모든 공간이 살아났고 활기를 띄었다. 단기 활동가 3명이 없었다면 절대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모두 12개 학교에서 총 52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이전 교사 연수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인원이 2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였다. 심지어 기존에는 다물록과 다른 지역을 함께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물록 교사 참여인원만 해도 이미 센터 최대 수용 인원을 넘어 다른 지역은 아쉽지만 함께 할 수 없었다. 3년 사이에 다물록에 4개 학교가 생겼고, 한 학교당 교사 수도 거의 2배가 되었다. 학교가 생겨 마을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증원된 교사인원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설마 다올까? 했는데 연수 시작 당일 감기 몸살로 2명만이 불참하고 모두 50명이 참가했다.



그룹별로 이름과 퍼포먼스 시간. 몸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TTL팀

행복한 출발

다물록에서 승합차를 타고 온 교사들은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센터에 처음 온 교사가 대부분인데 풍경과 날씨가 너무 좋다고 했다. 접수를 하며 명찰과 단체티셔츠를 받아 들고 일부는 방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점심식사 시간. 분명 60인분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부족했다. 부랴부랴 대체 음식을 만들었다. 다들 너무 맛있다고 2번 이상 더 먹었다. 이후에 식재료를 더 구매해 다음 식사부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 시간. 전체 프로그램 안내와 센터 규칙들을 안내했다. 환경을 생각해 샴푸 대신 비누를, 설거지할 때는 주방세제 대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 후기 중에는 이 환경 실천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는 평이 있었다. 샴푸가 자연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그리고 모둠시간, 서로 다른 학교를 끌고루 섞어 총 4개 모둠으로 나누었다. 각 모둠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모둠이름과 구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지역이라 서로 얼굴은 알고 있어 인사는 했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던 선생님들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모둠별로 경쟁하듯이 이름을 정하고 구호를 만들고 연습을 했다. 한 모둠에서 큰 소리로 연습을 하면 그 옆에서는 더 큰 소리로 연습을 했다. 필리핀 문화에는 이렇게 모둠 이름을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시도해 봤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렇게 정해진 모둠별 이름은 티티엘, 하모니, 샬롯, 피스메이커스. 각 모둠별로 준비한 짧은 노래, 구호, 혹은 퍼포먼스를 앞에 나와 발표하였다.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총코 전 군수님 부인 린다씨

푸욱~빠져든 강의들

첫 번째 강의는 ‘문화 다양성 이해와 문화 충격’이라는 주제로 총코 전 군수님과 그의 부인이자 영국인인 린다씨가 진행했다. 대부분의 다물록 학교는 마노보 원주민이나 무슬림 지역인데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서 꼭 필요한 주제라는 요청이 있었다. 전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린다씨가 35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면서 느꼈던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었다. 그 후 교사들이 모둠별 토론으로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고 각 모둠별로 한 명의 교사가 본인의 경험을 나누었다. 공감하며 함께 웃기도 했지만 충격을 받았던 교사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강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필리핀 JTS의 이원주대표님이 진행했다. ‘새마을운동’ 영상 자료로 시작한 강의는 어떻게 마을 주민들과 마을 개발을 할 것인지 순서도를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새마을운동’ 영상 자료를 본 선생님들은 한국이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한국 전쟁 전후의 상황을 보니 필리핀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부를 이룬 것인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 하기도 했다. 관련된 토론은 다음 날 진행하기로 하고 모두 숙소로 돌아갔다.

위 캔 두 잇!

새벽 4시 30분. 맑은 종소리로 아침을 깨웠다. 아침의 첫 프로그램은 센터 문을 나가 조깅을 하기로 했다. 시작은 활기찼다. 대문 밖을 나간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제대로 뛰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었다.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문화에 조깅은 낯선 것이었다. 앞서 뛰어간 그룹은 군대에서 할 법한 구호를 외치며 신나게 달려 나갔고, 중간과 끝부분에서 활동가들이 한국식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며 독려했다. “아이 캔 두 잇, 유 캔 두 잇, 위 캔 두 잇!”과 비샤아어(민다나오 섬의 언어)로 하나, 둘을 의미하는 “이사, 두하”를 외쳤다. 활동가들이 ‘아이 캔’을 외치면 선생님들이 ‘두 잇’을 외쳤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내 익숙해져서 하나가 되어 신나게 구호를 외쳤다. 그렇게 선생님들은 생애 처음해 본 30분간의 조깅을 마쳤다.



학교별로 열심히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모습

다시 시작된 강의. 어젯밤에 이어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의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상황이 비슷한 학교끼리 짝이 되어 토론과 목표 설정, 기간, 상세 실행 계획,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순서도에 맞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마을에서 거의 유일한 지식인인 교사가 마을 개발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열띤 토론 끝에 각 학교별로 발표를 진행했다. 먹을 것이 없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학교에 텃밭을 운영해 채소와 과일 등을 키워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이 많았다. 발표 후에는 이원주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원주 대표님이 급한 업무로 마닐라로 돌아가셔야 해서 부득이하게 참가 증서를 미리 나눠주었다. 대표님께서서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학교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태양광 전등을 각 학교별로 2개씩 선물로 주셨다. 몇몇 선생님들은 탄성을 지르며 환호하였다.



마노보언어에 대해 연극을 통해 발표하는 모습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점심 식사 후에 세 번째 강의는 다물록 지역의 원주민 언어인 마노보어와 관련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 교수 방법’이라는 주제로 판칸투칸 지역의 학교 교사가 진행하였다. 발표 교사 자신이 마노보족으로서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 가난한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림 카드를 이용한 노래부르기, 연극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설명했다. 연수중인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도 알려주었다. 다물록 지역은 절반이 마노보, 절반이 무슬림 지역이라 무슬림 언어(마긴다나오 어)에 대한 강의 요청도 있었으나 무슬림 지역 교육청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에게 미안했는데 무슬림 지역 선생님들도 마노보 수업을 진지하게 들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네 번째 강의는 ‘다중 지능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 알라원 학교 개교를 도우며 JTS와 관계를 맺어온 전 실리폰 초등학교 교장이자 현 퀘존 지역 학교의 교장인 신디씨가 진행해주었다. 가드너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8가지 다중 지능에 대한 설명 및 각 다중 지능에 맞게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안내하고, 각 모듈별로 강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중 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도 다중 지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다중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선생님들이 좋아했다.

신난다~ 재미난다~

저녁 식사 후 선생님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인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이 이어졌다. 아폴란 학교의 준버트 선생님과 키다마 학교의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사회자가 되었다. 끼와 흥이 많은 필리핀 사람들! 그 중에도 선택된 선생님들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잔뜩 과장된 목소리톤으로 “레이디스 앤 젠틀맨~웰컴 투 쇼셜리제이션 나일!!”으로 시작. 각 팀별로 군무와 노래를 선보였다. 그리고 깜짝 이벤트! 미카 실리 학교 로미오선생님의 감미로운 피아노 반주에 사회자인 준버트 선생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그 대상은 2명의 강사님과 총코 전 군수님의 부인인 린다씨. 세 분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세레나데는 감미로움 그 자체였다.

이어진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은 이번 교사 연수 기획자인 조지의 주도로 시작되어 주제별 노래 이어 부르기, 초콜릿 알 옮기기, 릴레이 경주, 단어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으로 이어졌고 선생님들은 배꼽을 잡고 구르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둘째 날 밤이자 마지막 밤이 지나갔다. 몇몇 선생님들은 마지막의 아쉬움을 기타 연주와 노래로 달랬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단체 사진

이제는 안녕~

맑은 종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전날의 조깅이 다소 버거웠다는 일부 여자 선생님들의 얘기가 있어 오늘 아침은 줌바 댄스로 시작했다. 흥이 많은 선생님들로서는 한 곡으로는 부족한지 세 곡이나 맘을 흘리면서 추고 나서야 끝이 났다. 샤워 후에 꿀 맛 같은 아침식사. 장소별로 대청소를 진행한 뒤 마지막 프로그램 시간. 지난 3일 동안의 사진 슬라이드를 보며 함께 웃었다. 그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모둠별로 나누고 각 모둠의 대표가 발표를 하였다. JTS덕분에 취업도 했는데 좋은 환경, 맛있는 음식,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기독교 국가답게 “갓 블레스 유”라는 말로 JTS에 축복을 빌어 주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선생님들은 활동가들에게 다가와 포옹을 하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몇몇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 활동가들과 단둘이 사진을 찍자고 하며 부끄러워하였다. 그렇게 짧았던 2박 3일의 교사 연수는 막을 내렸다.



알라원(Alawon) 커피 수매

알라원의 유일한 수입원인 커피 원두의 수매를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인 이제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커피 열매 수확량이 좋았지만 잦은 비로인해 건조가 어려워 수매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알라원(Alawon)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커피 열매를 빨고 건조해 담은 무거운 포대를 머리에 지고 먼 산길을 내려와 파는 과정이 힘든 일 같지만 그들은 밝은 얼굴로 기뻐하며 수매를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생두 껍질 파쇄기를 제공해서 부서진 원두가 거의 없고, 껍질을 부순 후 냇가에서 씻어 말리는 법을 안내해서인지 작년에 비해 원두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올해 9월에는 건조대를 꼭 지원하여 11월부터 있을 아라비카 원두는 쉽게 건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올해의 모든 커피 원두 수매는 마무리합니다.

농기구보관 창고 보수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2월 어느 날 농기구 보관 및 모목장으로 쓰고 있던 창고의 기둥이 10도 정도 기울어졌고 자칫 위험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굴삭기로 먼저 기둥을 바로 세우는 작업과 기존의 부러진 대나무 기둥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일주일 가량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나무 아래 기초를 콘크리트로 해서 땅과 닿는 부분이 썩지 않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보수 했습니다. 함께 작업한 목수는 적어도 3년 이상은 더 쓸 수 있겠다고 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놀로폴티치(Manolo Fortich) 사업,
그 첫 시작은 바갈랑잇(Bagalangit) 교사숙소**

올해 마놀로 폴티치군에 4건의 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될 건축 사업은 바갈랑잇 초등학교에 교사 숙소를 짓는 일이에요. 작년 선재수련팀이 교실을 보수해준 이후로 학교 교문도 생기고 오밀조밀 화단도 가꾸면서 점점 더 나은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바갈랑잇 학교. 그러나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 마을이라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실 한 쪽을 판자로 막은 약 3평의 공간에서 4명의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괜찮냐?'는 활동가의 물음에 '괜찮아요.'하면서 웃는 선생님들이지만 마놀로 폴티치군 사업 중 첫 번째로 바갈랑잇 초등학교 교사 숙소 건축이 시작될 계획이라는 말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하면서 반깁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 교사 숙소 부지 사전답사를 시작으로 2017년 건축의 첫 발을 힘차게 디딤니다.



다물록 학교 3곳 방문

강 건너, 산 넘어 경치 좋은 다물록 오지 마을,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이 한참 만에 나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학교가 그림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40분 이상 들어가는 타푸난, 한 시간이상 걸어 들어간 아폴란, 오프로드 길을 험새없이 달려가서 만난 인라보. 2013년 학교는 지어졌지만, 선생님 숙소가 없었어요. 오지마을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숙소도 새로 짓고 학교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5년에 시작되었지만, 오지마을이라 자재 배송도 어려웠고 필리핀 선거기간동안의 행정 공백으로 마을사람들에게 푸드포워크(food for work)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학교에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공부를 잘 하고 있었고, 마을 리더도 3월안에는 공사를 꼭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범농장

올해는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인 풀을 키워서 같이엮고 다시 풀이 자라면 같이엮고를 반복한 후 풀씨가 충분히 싹이 나서 더 날 것이 없도록 한 다음에 골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있을 유기농 강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키우는 4가지 정도의 옥수수를 심어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해충, 비료주기, 억센 잡초 3가지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까라바우를 이용해 거친 풀만 정리한 상태라 다시 땅을 깊게 매고 골을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성남시 공적개발원조 사업 표창 수여식

지난 2016년 필리핀JTS는 성남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축하여 장애아동의 활동을 고려한 실내체육 공간과 교실별 화장실 만들고, 맞춤 제작한 책상과 교육 기자재를 갖추었습니다. 지원 받은 단체들 중 사업을 잘 진행한 단체의 공헌자들에게 성남시장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위를 한 필리핀JTS의 이원주 대표를 대신해 한국JTS 김기진 대표가 대리수상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JTS부천·정기성 활동가

안선호님은 2014년 봉사에 대한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복지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JTS에 기부하고 있었던 터라, 기부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었습니다.

처음 사전 교육을 받기 위해 인사동에 갔던 것도 생각나고, ppt를 보며 혼자서 리허설을 여러 번 했던 것도 생각합니다. 거리모금 때 사용할 패넬을 열심히 만들던 것도 기억나고요. 한 달에 한 번 참 많이도 설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가서 한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고, 한번은 테이블을 놓고 간 적도 있고, 아크릴 모금함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실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있었고 봉사자가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었지요. 모금이 잘 되는 날도, 잘 안 되는 날도 있었고요. 그 모든 날은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감사의 날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두 배, 세 배로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해 줬지요. 또한, 3년 동안 함께 거리모금을 한 아이들에게도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관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3년의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에 잘 쓰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태국 스님들의 JTS다문화센터 방문

태국과 홍콩에 계신 태국 스님들께서 태국 국왕 서거 100일 기도차, 수원에 오셨다가 JTS다문화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안산 태국 사원의 주지로 계신 석재경 스님의 요청으로 국왕 극락往生 발원 기도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큰 스님께서 'JTS다문화센터가 태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JTS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단의 기업체 근로자나 가게 점원, 결혼 이민자, 다른 나라의 스님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십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 차가운 시선들로 한국생활이 힘들지만, 희망을 품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인도JTS 활동가 파견

3월 22일 인도JTS로 파견된 이미경, 이정미, 김민정 활동가(왼쪽부터), 떠나기 전에는 각자 다른 걱정들이 많은 듯 했지만 막상 떠날때는 하나같이 설레는 표정들입니다. 약 20여일간의 교육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되어 감사하다는 세사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인도JTS 사무국장과 수자타 아카데미 정문 앞에서 한컷. 눈빛이 더 반짝이네요. 건강히 활동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필리핀JTS & 인도JTS 활동가 네 사람 국내 복귀

필리핀JTS와 인도JTS에서 각각 1년동안 활동한 조혜림, 송치현, 박세환, 백은하(왼쪽부터) 활동가가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 적응하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돌아온 네 사람.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돌아온지 한달 남짓한데 함께했던 스텝들, 아이들이 보고싶다며 아쉬워 하네요. 현재는 조금 약해진 건강을 회복하며 다른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앙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이미경, 김민정, 이정미
필리핀	안병주, 김상훈, *서은실, 허유진



후원인의 소리



임양호님 손녀 고은설생일

고명신

생일을 맞아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운병훈

법륜스님께 온라인상과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js에서 어려운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권나영

어머니 명복을 빕니다.

권미선

생일축하!!!!

김영기

안산법당 봄불저녁반 도반님들의 정성을 모아 보시합니다.

김용태

여주 후인 이동열 영가님과 모든 영가님들이 좋은 부모 훌륭한 스승 깨끗한 국토에 나시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남경현

굶주리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졌으면 합니다.

문정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512, 중동대동다숲아파트 109동 주민일동이 기부하는 기부금입니다.

박경애

가족 이민호 박선영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동수

자녀이름 조은솔조유강이름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정

또 화를 내서.

서지은

차례상을 간소화하고 그돈으로 기부합니다.

정신곤

너무 힘들어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스님의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행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

사랑하는 3-4반 이제 졸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위에서 있구나. 나눔으로 시작한 너희의 첫걸음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지난 1년 너무 행복했다.

이미경

저에게보다 잘 쓰이는 곳으로.

윤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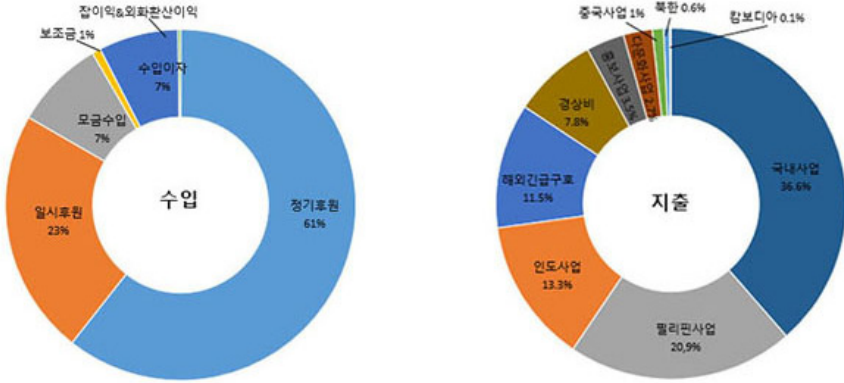
적은 돈이지만,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바르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경애



(사)한국제이티에스 2016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후원금	정기후원	3,458,186	61
	일시후원	1,293,925	23
모금수입	474,054	8	
사업비보조금	45,000	1	
수입이자	418,409	7	
기타수익	12,895		외화환산이익 : 12,764 잡이익 : 131
합 계	5,703,472	100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목적사업비	북한사업비	10,083	1	
	인도사업비	243,216	13	동계스afari 교육, 의료, 마을개발
	필리핀사업비	380,424	21	민다나오 학교건축 및 교육지원
	캄보디아사업비	2,723	0	콕농부아 마을 학교건축 마무리
	해외긴급구호	209,733	12	네팔 지진 피해 학교 복구
	중국사업비	19,105	1	취약계층 지원
	국내사업비	703,284	39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지원
	다문화사업비	48,340	3	안산다문화센터 운영
	홍보사업비	63,945	4	소식지 발행 등
	목적사업비 계	1,680,858	92	
경상비	142,060	8	사무실 임차료 및 회원프로그램 사용료	
지출 합계	1,822,918	100		
차기이월금	3,880,553			
합 계	5,703,474			

일시후원금 (2017. 1. 01. ~ 2017. 2. 28.)

북 한

(주)인서정공 fedn 감사함 강경림 감미선 강민숙 구구리 권현우 김경미 김경미 김기정 김도환 김민호 김보병 김성남 김성욱 김소영 김순향 김승희 김영수 김유진 김은정 김준형 김진환 김혜영 나경주 류해수 박기옥 박대현 박완임 박윤정 박준규 박지을 박청 백경화 북한 성채현 소민경 손지연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양서윤 염진희 오세권 오홍란 와우테크 유경희 윤영진 이규경 이미경 이요한 이주형 이진일 이창재 이태호 이현주 이호식 임계선 임소영 임재식 임진선 장순석 조용석 조재희 조협 최영숙 최은혜 한그루공방(김홍임) 한진이 허대영 흥정국 환회사

인 도

(주)인서정공 Esther Y. Lee 강명자 강창형 기덕규 김경란 김기정 김동민 김보람 김소영 김승희 김영숙 김유진 김은정 김진환 김희자 나희원 무기명 박대현 백경화 성지순례(후원금) 성채현 세무법인 중추 동래지점 소진호 손영수 송신일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여정화 연꽃희 오홍란 유경희 유소영 윤미희 윤영진 이규경 이미경 이주형 이진일 이태호 이형식 인도 임계선 임보경 임진선 조재희 허수호 흥정국 환회사

필리핀

(주)인서정공 김기정 김민호 김소영 김승희 김유진 김은정 김진환 김혜영 나경원 무기명 백경화 성채현 소진호 신재영 신종섭 안선희 오홍란 유경희 유소영 윤영진 이미경 이진일 이태호 임계선 조재희 필리핀 흥정국 흥지영 환회사

전 체

6429 21조이희숙형부 3년만기적금을... 감사합니다 강경아 강다영 강문봉 감미경 강미송2952 강복숙 강상원 강혜원 경인 경준 경경녀 고영선 고연주 고영미6408 고윤병훈 고정미 고주현 공연표 객세훈 구명서4343 구태완 국제구호 권경연 권경영 권나영 권민선 권신옥 권영일 권용태 권은하 권호주 금동숙 금삼승민승필 기정임 김경란 김경아 김경화웨미라마트 김경희98914 김계화 김기용 김남희 김단아 김대광 김도경 김도영 김도하 김동근(성화반) 김동민 김동재미소원 김동철 김동희 김민희 김미경 김미옥 김미자 김민수 김민정 김민주 김민호 김보경97709 김보라 김서영 김서원 김선남 김선숙 김선희부천 김성순 김성우 김성자 김성호 김소영 김소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옥 김수윤 김수진 김수필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숙자 김순실 김순열8110 김승희 김승희 김신혜 김여진 김연옥 김영기 김영선 김영자전주 김영주9792 김영희 김옥주 김용섭 김용태 김윤하 김유진 김은비 김은숙 김은이 김은자7674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6441 김은 김인영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금정 김정임 김종년 김종목 김중현 정은 김주영 김지숙 김지식 김지연 김지현 김지훈 김진환 김찬우2267 김창익 김춘희 김태균 김태훈 김태희9901 김현근 서대문 김현순 금정 김현주 김혜경 김혜라 김혜영 김효윤 김희연 나경화6039 나모부터다사 나무관세음이승훈 나무대바관세음 나무야미타불 나연우 남경현 노유지 노태곤 노하진 대한불교조계종운주선원 덕양김유필2728 류수진 무기명 문금령 문덕권 문서준 문정신 문희경 민선영9208 민영진 박경애 박경자 박계만 박관자 박근택 박기옥 박동주 박미라 박미숙 박민우 박민지2913 박분남 박상철 박석민 박선영 박선희 박솔빈 박순양 박승철 5307 박시현 박애림금정 박영기 박영순 박옥경 박완임 박용의 박윤정 박은숙 박은숙 박정섭 박정숙 박정식 박정자 박정현 박주하 박준규 박준우 박지은 박진옥 박태화 박현진 박화자 반미정 배병문 배성호 배지환 배춘애, 김인수 백건구 백경아 백경화 백영주 백서이 백순완 백영아2 백은영 배두호텔하브점 변동해 변정석 보리수동산 부평임진선5464 북한어린이들이 새해후원금 생일맞이보시 서승희 서은순 서지은 서초무기명 신한솔루선 성불 성윤희 성지순례 성채현 성현오 센터금요행복 순명자미소원 손미옥 전주돼지 손미정 손유정 손윤희 손주희 송문필 송순아 송중수 송준호 송지민 송희순 수고하세요 수자타학교후원금 수정조인선 시애틀최유영 시흥지도 신동근 신동현 신명철 신용철 신은영 신은주 신인옥 신재영 신종섭 심유현 씨주심시오 안병주 안산김종임1581 안석구축복 안중문 양시환 양윤건 양종목 양진영0622 양희정 여승은 여승진 여유량 여은화 여정민 염정우 오경호 전주돼지 오공이 오길순 오명희 오보영 오원순미소원 오윤경 오은서 오지연 오진자 오홍란 옥외숙금정돼지 왕옥선 우병근 우선영 우성배 원선호금정돼지 원철웅 원호연 유경호 유경희 유귀자 유남이 유미란 유미화 유선희 유승열 유승자 유애경 유여라 유정미6648 유정훈 유진영 윤경미 윤경하 윤미경 윤미리 윤병은5664 윤영미 윤영진 윤정순 윤정운1867 윤정은 윤주란 윤지연 윤진섭영가 윤진호 윤희숙 이경숙 이경애 이경주 이경호 이광주 이귀숙 이귀자 이길림 이모최점석 이문희 이미경 이미숙 이미향 이민호(아빠-이명환) 이산희 이세미나 이소영 영주돼지 이송자 이숙 이순형 이연희 이요한 이원석 이원형 이윤지2036 이은경 이은희 이익수 이익수당진돼지 이자영 이장규 이재성 이재숙 이정여 이정희 이주현 이주화(아빠-이명환) 이지연 이찬서 이창현 이태호 이하윤 이한수당진돼지 이현숙 인도수자타아카데미 인도후원금 임양호 임윤택 임정아 임종덕 임종호 임진선 임춘옥 임춘자 자원 장만순 장미정 장성우 장세영 장시정돼지3728 장원숙 장유정미소원 장윤희 장지혜 장현련 전상수 전승현 전영복 전제사업 전태환 전형수 전화영 정경아 정구석 정구환미소원 정덕숙 정미원 정민형 정성채 정승령 정승환 정신교 정영숙 정유진 정인규 정자현 정주현 정지안 정지화 정태경 정토희 정현아 정현옥 정현화 조남은 조성남 조성현 조성희 조수미 조아연 조애자 조영자 조용란 조용석 조정례 주)스마트월드 주경미 주현희 죽사대한불교조계종 진귀화 차지는 차진규군산 차춘자 찾았습시다 채영화 천형준 청도죽림정사 최경미 최경이 최경희 최동년 최명희 최상원 최상준 최순희 최영숙 최용순 최인기 최재용 최정례 최준현 최중창 최철웅 최현미 컨텐츠사업국특별정진기도 태국담마제따아람사찰 플러스4인방 필리핀 하미현 하지수 한상선 한선화 한승운 한승이 한신구 한정숙 한종호 한진이 한창식 한태경 행복학교 허환숙 홍옥준 흥정국 황광성 황상모 황선희 황영애 황유진 황인례 황재영 후원금

미국JTS 후원금 (2017. 1. 01. ~ 2017. 2. 28.)

권영미	무기명	이재철	Benevity	KYUNG J KIM
권해원	박경배	이주희	COLUMBUS	Lauren Carree
권혁준	박상희	이학우/이영숙	JUNGTO	Mira Shin
김길남	박승용	임선희	Dianne Park	San Lee
김성세	박승용	정복교	Geun-AE Park	SOO JIN YOUNG
김성순/최영태	시에틀정토회원	정은희	GWI YOUNG CHAE	Stephany Lee
김윤진/황보영/황규현	워싱턴정토회원	정지아	Hee Jun	Sun Joo Oh
김재원	원윤경	최만성	Hyang Chu	TIP J ENTERPRICES
김학노	유럽정토회원	토론토 법당	JJ FAMILIES LLC	YOUNG S SUH
김학노	유승묵	AJ Seattle	JONGSIK M AHN	
노유경	이동영	BCAJTS(거리모금	JUNG DEOG OH	
뉴욕법당	이영국	BAKE SALE)	Junhyun Park	

기부소식



JTS다문화센터에서 캄보디아 공동체 모임

캄보디아 공동체 분들이 JTS다문화센터에서 일주일간 경제인 모임을 한 후,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계 어린이 돕기에 1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나눔저금통 현황 (2017. 1. 01. ~ 2017. 2. 28.)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릉

강릉법당 122,590

강서

강서법당 31,000

거창

거창법당 155,120 거창법당 112,780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233,000

경산

경산법당 25,620 경산법당 15,050 경산법당 36,540

공주

공주법당 139,000

관악

관악법당 194,910 관악법당 38,110

관평

관평법당 436,960

광명

광명법당 30,620 광명법당 17,580

광주

광주법당 371,660

구로

구로법당 208,990

구리

구리법당 324,930

구미

구미법당 44,520 구미법당 63,790

군산

김정미 39,060 이경화 26,560 차진규 36,730

금정

김미경 12,960 김미경 18,750 김정애 20,300 김현순 23,060 박애림 35,050 옥외숙 23,900 원선호 18,040

금천

김영애 35,620 이순화 34,560

기장

기장법당 44,820

기흥

기흥법당 199,730 기흥법당 26,320

김천

김천법당 30,690

김포

김포법당 27,690 김포법당 66,700

김해

김해법당 134,060 김해법당 300

남산

남산법당 147,480

노원

노원법당 158,250 노원법당 70,970 노원법당 79,130 노원법당 24,960 노원법당 161,230

당진

이익수 47,020 이한수 25,120 이한수 63,770

대구

공수진 32,610 무명5개 139,310 박금자 18,800 안선영 67,700 외화환전금 149,510 이철우 41,270 정용수 27,290 정준호 61,690 지산동나이 스마트 11,940 지산동테레사마트2개 17,000

대연

대연법당 180,200

대전

대전법당 684,330

덕양

덕양법당 55,600 덕양법당 19,730 덕양법당 44,830

도봉

고민정 26,130 김승숙 30,290 김영화 21,820 도봉법당 44,350 박혜숙 30,690 이원재 33,880 표순미 52,200

동래

동래법당 465,500 동래법당 555,810

동작

동작법당 139,470

마산

마산법당 173,600 마산법당 240,740

목포

목포법당 58,140 목포법당 50,000

밀양

밀양법당 85,100

반여

반여법당 289,010

방어

방어법당 446,400

부사

부사법당 178,560

부천

김선희220,000 김향례 24,800 방소현 22,140 서현태 35,800

부평

부평법당 71,700 이옥규 20,000

사천

사천법당 37,250

사하

강일순3개 78,800 강효정 16,030 김사문 34,220 김현자 44,400 문정숙 16,850 박용석 27,610 박유민3개 57,500 배옥자2개 58,580 시소림 35,010 시준오 29,680 심모희 15,100 이상국 21,010 장명순 7,370 장희숙 14,050 정준우 21,210 조예진2개 10,080 주영란 21,700 최인숙 22,140 최혜진2개 30,250 황옥선 40,900

상주

상주법당 85,200 상주법당 18,860

서대문

김현근 22,050

서면

서면법당 421,160

서산

서산법당 48,070

서초

서초법당 283,400 서초법당 196,810

나눔회원소식

서초법당 985,230 서초법당 889,190
서초법당 638,000 서초법당 449,210
서초법당 294,037

서현

서현법당 410,410 서현법당 116,910

성동

성동법당 67,690

성서

성서법당 64,260 성서법당 17,540

세종

세종법당 15,450

송파

송파법당 169,460 송파법당 18,570
송파법당 121,600

송현

송현법당 22,080 송현법당 25,920

수원

수원법당 268,800 수원법당 82,940

안산

안산법당 29,400 안산법당 89,610

안성

박경수 7,250

안양

윤정환 32,560 이종명 25,110

영주

이소영 24,050

영천

김희정 2,500 이대균 8,000

영통

영통법당 189,690

옥교

김양은 37,520 김옥숙 14,070 무명
200,000 박은선 12,950 한양스토아
96,250

울산

강미라 26,330 김영분 19,870 김혜
진 13,940 무거탑패밀리마트 10,950
무명 25,570 박창홍 57,270 배웅규
54,700 영화초등2-6일동 62,750 울
산농협아름지점 61,090 울산농협아름
지점15,810 울산농협아름지점 7,090
이정남 29,620 이정연 23,780 정
용한 45,110 정용한 45,070 제갈은
정 20,820 탑훼밀리 5,810 탱크카
15,580 GS편의점 102,190

원주

무명 9,700 반창수 19,930 원주법당

52,180 홍다감 9,020

은평

은평법당 32,530

음성

음성법당 137,710 음성법당 71,480

의창

의창법당 68,420

인천

인천법당 102,380

일산

일산법당 247,950 일산법당 123,330

장유

장유법당 59,180 장유법당 9,250

전주

김미자 22,930 김영자 20,290 박영순
22,900 손미옥 51,530 오경호 20,460
이장규 37,970 임정아 30,220

정읍

김중현 44,960

제주

제주법당 83,710 제주법당 56,330

종로

무명 21,010

중리

중리법당 60,830

진해

진해법당 47,150 진해법당 32,730

창원

창원법당 100,980

청주

청주법당 302,300 청주법당지장회
300,000

대전

대전법당 88,200 대전법당 84,650

통영

통영법당 93,070

함안

함안법당 149,710

해운대

해운대법당 184,360

홍성

홍성법당 17,820

화명

화명법당 25,900 화명법당 16,100 화

명법당 22,000

화봉

화봉법당 392,990 화봉법당 46,210

기타

강미송 28,230 구명서 16,850 김
도경 25,650 김민경 23,850 김성
호 29,300 김수옥 22,360 김수
현 166,850 김소열 12,700 김승
옥 18,800 김은희 85,900 김지원
36,510 김태연 76,700 김현영 26,140
나경화 14,740 민선영 48,990 박민
지 16,990 박승철 41,000 박승철
43,600 박정식 6,300 배금자 17,840
신은주 21,130 오지연 17,090 유
진우 21,000 이경호 33,950 이호
영 29,000 이정희 31,760 이현
숙 49,290 장수미 26,110 장시
정 19,700 장지혜 84,170 전영은
69,100 주경미 18,700 최연화 31,500
황영태 29,100

거리모금 현황

(2017년 1월 1일 ~ 2017년 2월 28일)

강동 139,360 강릉 252,000 강서
46,550 강화 201,510 거제 493,650
거창 211,000 경기광주 142,450
경산 187,000 경주 459,490 관
악 235,430 광명 239,380 구
리 360,670 구미 447,580 대
연 172,000 덕양 109,230 도
봉 361,450 동대문 121,120 동
래 2,080,550 마산 475,710 목
포 181,820 문경 185,250 보은
45,780 부사 314,480 부천 360,390
부평 167,020 분당 206,500 사
천 113,270 사하 1,191,520 서대
문 101,600 서면 1,164,380 서
초 955,810 서현 177,200 성동
55,500 성북 346,046 송파 256,350
송현 370,800 수원 277,710 수
정 291,710 시흥 138,300 안
동 265,550 안산 135,450 안산
센터 85,640 안성 110,680 안
양 122,400 양산 399,660 양천
94,860 양평 88,500 영주 265,450
영통 198,500 옥교 158,100 용인
256,250 울산 243,760 은평 42,120
의정부 162,090 의창 131,700 인
천 133,450 일산 346,520 장유
451,110 전주 172,000 정관 84,600
정토법당 101,950 제주 464,650
종로 137,100 종량 158,400 진주
78,120 진해 143,950 창원 532,060
처인 582,130 천안 194,250 청
주 624,490 충주 128,000 파
주 268,040 평택 78,870 포항덕
산 588,240 포항양덕 496,100 함
안 161,000 해운대 2,279,560 화명
695,260 JTS거리1월 68,6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32

2017 APR-MAY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